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독교의 역할과 교육방향에 관한 연구*

김희영(장로회신학대학교/학술연구교수)

gloria1009@naver.com

한글 초록

슈밥(Schwab)이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언급하면서 많은 이들이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의 발달을 넘어서서 우리의 사회, 문화, 생활양식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하며 더욱더 실감을 하고 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은 분명 인간의 삶을 증진시키며, 문명의 발달을 이루게 할 것이라 희망하지만, 인간소외나 양극화의 문제를 우려하게 된다. 이러한 때에 기독교가 어떻게 공적 영역에서 기여하며 교육의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독교의 역할과 교육방향에 관하여 연구한 논문이다. 먼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일어날 개인과 공동체의 내면과 외면의 문제를 다각도로 조명하고자 심리학자 미첼(Mitchell), 사회학자 벨라(Bellah), 신학자 맥그래스(McGrath), 철학자 보스트롬(Bostrom)의 견해를 통해 접근하였다. 이들의 이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의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초월적 세계에 사는 개인의 삶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에 기독교가 초월적 규범을 제시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개인과 세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며, 교육의 방향을 “상징을 만들고 표현하는 교육”으로 보았다. 이를 위하여 관찰하기, 들어가기, 발견하기, 참여하기, 상징 만들기 5단계를 제시하여, 이를 통해 현실 세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하였다.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87328)

《 주제어 》

주제어: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기독교 역할, 교육방향, 기독교교육

I. 들어가는 말

코로나19로 인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가 더 빨리 우리의 눈앞에 성큼 다가왔다. 인공지능, 로봇공학, 3D 프린팅, 생명공학,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신소재 등은 하나의 과학기술의 발전에서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시스템에 영향을 주고 있다(Schwab, 2018, 25-26). ‘포노 사피엔스’라는 용어와 신경기술, 생명공학의 기술발전의 영향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과학문명의 기술은 하나의 도구에서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일부가 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우리 사회의 곳곳 통신, 제조업, 판매업, 금융업뿐만 아니라, 교육과 복지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인지활동을 하고 있다(양금희, 2021). 학자들은 미래는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러한 기술을 발전시킬 소수의 상위계층과 다수의 하위계층으로 양분될 것이라고 보았다. 4차 산업혁명시대가 제공하는 신기술의 명(明) 뒤에는 그 암(暗)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물리적인 세계뿐 아니라 그 이면의 세계,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업의 면접까지 인공지능으로 바뀌고 있으면서, 4차 산업혁명은 하나의 기술의 발전을 넘어서서 우리의 사회, 문화, 생활양식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

종교 안에는 특정한 종교형태를 결정화하는 비종교적 요소들(경제, 사회, 심리적 요소들)과 상호 작용하는 보편 구조적 원리들이 존재한다. 그러하다면 종교는 어느 정도까지는 경제학과 사회학, 기타 변수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다(최환영, 1999, 14). 이는 중세 도시발달과 정치·경제적 상황, 인쇄술의 발달 등의 사회·경제·정치적 상황들이 개신교에 영향을 준 것을 통해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베버(Weber)의 이론과 같이 개신교의 윤리가 자본주의 발전에 영향을 주면서 종교와 사회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4차 산업시대도 비대면 예배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가 기독교의 예배와 여러 형태들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반면, 기독교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당면한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하여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슈바(Shwab)의 ‘4차 산업혁명’논의 이후 기독교교육과 신학계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논의가 있어왔다. 김도일(2017)은 국내 13명의 기독교교육학자들과 함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목회”를 연구하여 해리스(Harris)를 비롯하여 전통적인 교육영역에 공학, 행정, 기도를 더하여 4차 산업시대의 교육목회를 제안하였다. 양금희(2018)는 “AI(인공지능)의 인식론적 문제와 기독교교육”에서 인공지능의 인식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독교적 인식과 인공지능 시대의 기독교교육을 제안하였다. 임창호(2018)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기독교교육 방향성 재고”에서 기독교교육의 현장에서 내용과 형식을 디자인하는 방향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김정준(2018; 2019)은 “제4차 산업혁명과 교육목회의 새 전망-인공지능을 중심으로”와 한국연구재단 과제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기독교교육의 인간상 고찰”을 연구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목회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간상을 제안하였다. 이후 많은 학회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에 관하여 많이 연구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4차 산업혁명의 교육목회의 방향과 인간의 영성, 인간상, 인식론의 문제에 대하여 잘 제안하며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종교’로서의 기독교의 역할과 공적 영역에서의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시한 연구가 거의 없다. 우리는 교회 안뿐 아니라 세계 속에서 다른 이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공적 영역에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하는 공적 영역(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어떻게 바람직한 교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리학, 사회학, 신학, 철학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

명시대의 기독교의 역할과 교육방향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심리학은 미첼(Mitchell), 사회학은 벨라(Bellah), 신학은 맥그래스(McGrath), 철학은 보스트롬(Bostrom)의 이론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미첼은 프로이트의 욕동이론과 대상관계이론을 종합하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인간의 상호중요성, 양육자와 어린이와의 관계, 인간의 내면의 욕구를 보게 한다. 벨라는 종교와 사회와의 관계를 연결하며 종교가 사회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변화를 야기하는지 말해주고 있다. 보스트롬은 철학자로서 인간의 뇌와 뇌강화 등 다방면에서 연구하는 학자로 과학기술의 발달이 인간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지 볼 수 있다. 맥그래스는 분자 생물학과 역사, 조직신학에 박사학위를 받은 신학자로서 과학과 신학을 연결하며 인간 실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제공해 준다. 이러한 심리학, 사회학, 신학, 철학적 관점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살아가는 한 개인과 공동체의 현상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외적인 차원과 내적인 차원에 대해 설명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살고 있는 개인이 이 세계 안에서 성장을 하고 현상을 바르게 보고, 소속된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기독교의 역할과 이를 위한 교육방향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II.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세계

1. 4차 산업혁명의시대의 특징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고, 예측하게 된다. 특별히 기술의 영향력, 개인과 조직의 목적에 대한 이해, 가치와 기술과의 관계, 가치변곡점의 활용(Schwab, 2018, 60-66; 임창호, 2018에서 재인용), 기술의 혁신과 경쟁, 과잉성장으로 인한 자기착취, 위험 사회에

서 불안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김정준, 2019, 128-134).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개인적인 차원의 내면과 외면, 공동체적 차원의 내면과 외면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1〉 4차 산업혁명시대의 특징

	개인-내면	개인-외면	공동체-내면	공동체-외면
예측 현황	인공지능과 인간과의 상호관계	신경기술발달과 뇌분석·뇌기능강화/ 배아선별과 인권	빅데이터와 준거집단/ 기술활용능력과 양극화	증강·가상현실과 현실사회/ 시스템 통제/ 데이터 수집과 개인의 자율성
문제	내면 발달/ 자존감/ 인재상과 교육	인간-기계의 인터페이스와 정체성/ 인간존엄성	신념/ 문화/ 윤리	시스템/ 구조/ 관계
관련 학문	심리학	뇌과학/철학	철학/신학/사회학	사회학
관련 학자	미첼	보스트롬	맥그래스	벨라
중점 사항	내면의 동기/ 인간발달과 관계/ 자존감과 정체성/ 성장과 교육방향	정체성 형성과 신체성, 의식/ 과학기술발달과 인간의 존엄성	집단 지성과 신적 권위/윤리/ 기독교 신념	사회 구조 변동/ 자율성과 통제/ 실재와 상징, 통합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은 인지적인 차원뿐 아니라 인간 발달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과학 혁명은 그 활용 능력에 따라 개인의 자존감과 정체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생명공학의 발달 역시 인간의 '자기 능력을 강화'시켜주어 '자기의식의 확장'을 주고, 때로는 '긍정적인 자기이미지'를 형성해 주어 정체성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빅데이터는 초월적 가치와 규범, 기독교의 신념, 윤리의 문제 앞에

집단 지성으로서 자리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증강·가상 현실은 사회 구조의 변동을 야기할 수 있고, 감시와 통제는 인간의 자율성의 문제, 사회 통합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은 인간의 내면과 외면, 개인과 공동체에 영향을 주어 우리로 정체성이나 인간의 존엄성, 신념과 자율성과 통제, 사회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시대를 조명할 때에는 심리학, 사회학, 철학, 신학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2.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세계

1) 세계와 실재

세계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 또는 인류 사회 전체를 뜻하기도 하고, 특정 사회나 영역, 현상의 모든 범위를 뜻하기도 하다(표준국어대사전). 그래서 우리는 한 사회를 지칭할 때에나, 영토와 주권이 있는 나라를 뜻할 때에 세계라고 말한다. 또한 현상의 모든 범위를 말할 때에도 세계라고 말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감각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를 ‘현실 세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종교적이거나 신비적인 차원, 현실 세계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역에 대하여 ‘초월적 세계’라고 지칭하기도 하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특별히 더 부각된 ‘가상 세계’도 경험되는 현상으로 실제 있는 것처럼 보이나 객관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네이버 국어사전) 세계라고 지칭한다. 이러한 현실 세계, 초월적 세계, 가상 세계는 현재 4차 산업혁명시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영역이며, 삶의 범주이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는 실제로 존재하는 점에서는 실재라고 볼 수 있다. ‘실재’는 다양한 용례로 사용되는데, 사물의 본질을 뜻하기도 하며, 인간의 의식으로부터 독립하여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세계를 의미하기도 하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표준국어대사전). 본 글에서는 실재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되, 본질의 개념도 포함하여 표현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계를 바라볼 때, 실재에 대한 이해를 하나의 준거 틀로 바라보고 살펴보고자 한다.

맥그래스(McGrath, 2011, 194-195)는 사람의 질병에 병리적, 손상적, 활동적, 참여적 네 층위가 있다고 보며, 실재도 다층적인 차원이 있다고 설명한다. 한 사람에게 질병은 ‘환자’라는 병리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의 기능을 손상하는 손상적 층위, 그리고 활동에 제약을 받는 활동적 층위, 사회생활과 직장에서의 참여가 제한된 참여적 층위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의 기능이 손상된 이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연구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실재에도 다층적인 차원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세계가 다양한 계층으로 나뉘어져 있고, 개별 학문은 이 실재의 다양한 층을 각각 다루며, 각 계층은 그것에 부합되는 효과적인 연구방식을 개발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한다(McGrath, 2010, 174). 그렇기에 세계를 바라볼 때, 신학의 관점, 사회학의 관점, 과학의 관점이 각각 다르고 연구방법이 다르지만 그 고유한 학문은 실재의 각기 다른 층을 다루면서 전체적으로 실재에 관하여 접근하며 통일성 안에 다양성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다층적인 차원의 실재는 인간의 마음과 관계없이 존재하지만, 모두 인간과 세계와의 만남을 통해 얻어지는 산물이다. 그렇기에 그는 실재에 대한 이해를 “경험적 명제”로 보며, 지식자와 실재와의 연관성을 말하는 비평적 실재론의 위치에 서 있다(Myers, 2010).

종교를 하나의 실재로 말한다면 벨라의 “상징적 실재주의”에서도 그 실재이해를 볼 수 있다. 그는 종교는 객관적 명제의 집합이라기보다는 인간에 의해 “체험된 전체(felt-whole), 즉 주관과 객관을 포함하며 인간 행동의 의미를 제공하는 맥락의 구실을 하는 어떤 전체를 묘사하고 상기시키는 상징체계(symbol system)”라고 정의한다(Bellah, 1970, 237-259; 김중서, 1993에서 재인용). 종교는 주관과 객관 사이의 상호작용의 흐름을 조직하고 규제하거나 인간의 감정, 가치 및 주체적 희망 등을 표현하는 “비객관적 상

징(non-objective symbols)”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고유한 실재(a unique reality)라는 것이다(김종서, 1993). 이러한 점에서 종교는 하나의 실재이며, 이러한 실재는 인간과의 상호작용 가운데에서 인간 행동에 의미를 제공하기도 하고, 인간의 감정과 희망을 표현하는 상징들이 된다. 종교는 외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인 실재이기도 하지만, 그 종교적 행위와 가르침, 예전에 참여하는 사람에 의해 실재로 이해된다.

맥그래스(McGrath, 2010, 182-188)는 이러한 실재로서의 세계를 삼위일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한다. 이 세상은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지금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고 이 세상은 결국 선함을 회복할 것이다. 창조론뿐 아니라 구원 경륜을 통해서 자연과 이 세상을 바라본다. 단순히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것에서 넘어서서 그 선함과 아름다움이 종종 감추어져 있지만, 그것은 변화의 소망을 발산하는 얼룩덜룩한 실재, 양지와 음지가 함께 공존하는 심미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한다. 이러한 실재에 대한 삼위일체적 이해는 심미적인 차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구원경륜을 통해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는 미첼이 설명하는 대상관계이론에서 개인과 대상(타자, 세상)과의 관계를 통한 자기지식, 자기이해를 하게 되는 것과 유사하다. 즉, 우리가 종교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현상 세계든, 현상 세계안에 있는 자연이든지 이것을 하나의 실재로 보았을 때, 우리는 이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더라도, 주관적으로 이해하는 우리의 지각과 사유에 의해 이해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실재에 대한 이해는 사람마다 다르게 그려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살고 있는 인간이 세계를 바라볼 때에는 다양한 각도로 바라보아야 하며, 인간의 주관적인 지평에 의해 세계를 바라보는 것을 인식하며, 기독교 신학에 의해 선과 악의 모습을 함께 심미적인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세계를 현실 세계, 가상 세계, 초월적 세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세계와 개인과의 관계를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세계

4차 산업시대는 현실 세계가 이전의 시대와는 다른 양상을 띤다. 현실 세계는 기구·기계와 약물 등을 통해 휴먼 증강을 일으키고,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사람 대 사람 대신 인공지능과 상호작용한다. 가상 세계는 더욱더 시공간을 초월한 만남을 가능하게 하고, 점차 현실 세계를 반영하고, 현실 세계와 연속성을 가지고, 현실 세계의 대안이 되기도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실 세계에서의 활동이 멈추어졌을 때에도, 가상 세계에서 경제활동, 정치활동, 교육활동, 종교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는 초월적 세계에 대한 갈망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윤리적 행위와 도덕적 실천 운동을 요청하고 있다(지용근, 2021). 또한 자본과 기술 발달로 인해 발생할 거대구조와 개인생활 간에 벌어질 간극에 대하여 매개구조가 필요한데, 기독교가 매개구조로 기여함으로써 인간소외와 아노미 현상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최환영, 1999). 따라서 기독교의 역할이 요청된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개인이 거주하고, 경험하는 현실 세계, 가상 세계, 초월적 세계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를 위한 기독교의 역할과 교육방향에 대하여 살펴볼도록 하겠다.

(1) 현실 세계

현실 세계는 우리가 분투하고, 일하고, 번민하는 특징을 가지며 기능하고, 적응하고, 생존하려는 최초의 세계이다(Bellah, 2011, x v). 인류의 역사는 현실 세계에서의 역사를 말하기도 하다. 하나의 과학기술의 발달은 사람들의 일상의 삶의 패턴을 변화시켰다. 전기의 발견은 과학기술의 발견에서 넘어서서 대량생산으로 이어지고, 사회 구조를 변화시켰다. 이러한 점에서 현실 세계는 과학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과학의 발견은 우리의 실제의 세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우리가 사는 세계를 새롭게 설명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하나의 과학적인 세계로 설명은 가능하나 우주를 설명하

거나 우주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으며, 다만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다(McGrath, 2010, 73-74).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의식과 사실 뒤에 있을 수 있는 함의와 의미는 과학적인 관점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다(Bellah, 1975, 72).

또한 우리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며, 문화가 주는 다른 실제들과 일상의 현실 세계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우리의 눈에 명백하게 나타나는 실제적인 세계이면서도, 동시에 문화적으로, 상징적으로 구축된 세계이다(Bellah, 2011, x v).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문화를 만들지만, 이러한 문화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어 새로운 양식으로 현실 세계를 만들어간다. 한국인의 문화는 K팝, K뷰티를 만들고, 이는 다시 우리의 경제, 정치적인 차원에도 영향을 준다. 그리고 우리는 문화를 향유하면서 현실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세계에서 인간은 여전히 상호작용을 하면서 성장한다.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 어머니의 표정과 웃음에 반응하며 자기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그린다. 현실 세계에서 만나는 관계를 통해, 현실 세계에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지 인간으로서 뛰어난 품성과 능력, 자질, 건강, 소유를 통해 정체성을 형성한다. 아기는 양육자의 표정과 언어, 즉각적인 반응에 의해 자기이미지를 구축한다. 따스한 상호관계, 아이의 공격적인 행동에도 수용하기, 아이의 요구에 즉각적인 반응하기는 아이로 자신을 전능한 자기이미지를 가지게 한다. 코훗(Kohut, 1977)은 유아가 자기로부터 분화되지 않은 양육자인 '자기대상'과의 관계를 통해 자기의 응집성, 항상성, 탄력성을 느끼며 자기를 확립해간다고 보았다. '자기대상'은 아동의 초기 정신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아동은 자신의 과시적인 이미지를 자기대상에 반영하면서 '나는 완벽하고 너는 나의 모습에 감탄한다는 것'을 느끼고, 무력하게 느껴지는 자기의 이미지는 이상화된 자기대상에 융합시킴에 '너는 완벽하다. 그리고 나는 너의 일부이다.'고 본다고 하였다(Mitchell, 1999, 547-549). 즉 아이는 자신을 반영(mirroring)을 해주거나, 자신의 모델화된(idealized) 좋은

‘자기 대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Mitchell, 1999, 550-555). 이러한 점에서 아이에게 상호작용은 인지적인 반응을 넘어선 자기 분화, 자기 응집성, 정체성의 차원에 영향을 준다고 보겠다. 이는 양육자의 물리적인 반응뿐 아니라 정서적인 교감을 통해서 가능하다.

4차 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의 역할은 점차 양육자의 위치에 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의 울음을 분석하고, 아이의 심리와 상황, 정서를 분석하고 설명해주고, 다음 발달단계에 가기 위한 지침을 주기도 할 뿐 아니라, 인공지능 로봇이 직접 그 일을 담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인지적으로 알려주고, 상황을 분석하고, 지침을 제공하는 도움을 줄 수 있어도 한 아이가 정서적으로 성장하고, 자기응집성을 가지고 한 인격체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격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반영(mirroring)하고, 인격체로서의 모델(idealized)이 되어주는 인격체 양육자가 필요하다. 그러할 때, 아이는 자기를 이상화하고, 대상을 이상화하면서 양육자로부터 분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어린이의 양육에 있어 인공지능은 보조의 기능은 할 수 있겠지만, 한계를 가지며, 양육자의 인격적인 상호작용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제임스(James, 2017, 527, 588)는 인간의 자기(self)는 신체적 욕구, 장식품을 애호하고, 소유하고 싶은 물질적 자기와 타인으로부터 주목과 존경을 받으려는 사회적 자기, 그리고, 지적, 도덕적, 종교적 열망과 양심인 정신적 자기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다양한 자기들은 다양성과 비연속적인 것과 통합성과 연속성 사이의 긴장 가운데 있다. 그런데 개인이 분석과 해석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다양한 자기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일수록, 더 강해지고 더 탄력성과 내구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다양한 경험들 가운데에서 연속성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더 다양한 자기의 모습을 수용하는 것에 의해 정체감이 확산되는 것을 견딘다는 것이다(Mitchell, 1993, 115-116).

휴먼 증강기술로 인해 인간의 자존감과 정체성도 재력으로 인해 좌우될

위험이 있고, 기술능력은 안정된 사회적인 위치를 보장하느냐, 아니면 소외되고 무력한 존재가 되게 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킥 노동자(gig worker)로서의 전환은 불안정한 생활을 주며,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제안을 하지 못한다. 파편화된 자기이미지로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존재를 정조할 곳을 찾고 있다. 이러한 때에 자기 성찰과 해석을 통해서 다양한 자기를 수용하고, 이러한 자기의 모습 속에서 연속적인 차원, 변치 않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발견한다면 변화하는 정체성 가운데에서 통합을 이루며 더 내구성이 있을 수 있다.

미첼(Mitchell, 1993, 116)은 삶의 풍부함과 만족은 자기에 대하여 경험되는 다양성과 통합성, 연속성과 비연속성간의 변증법적인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너무 연속성만이 있으면 정체화 되지만 분절화된 개인의 경험에서 연속성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혹은 강박적인 특성이 다양한 형태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의미 있는 희망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그렇기에 우리는 물리적이면서 문화적인 양식과 과학적인 현상, 질서가 있는 곳에 자신을 위치하면서 서로 다른 자기(self)를 통합하고 연속성을 가지면서 변화하는 새로운 상황 가운데에서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현실 세계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통합할 수 있는 항구적인 곳, 변치 않는 곳, 현실 너머의 세계가 필요하다.

(2) 가상 세계

가상의 세계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곳이다. 현재 메타버스에서 입학식과 졸업식을 통해 공동체식을 형성한다. 많은 기업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러한 메타버스는 레고 블록처럼 생긴 캐릭터로 활동하는 로블록스나 제페토 등 아바타가 활동하는 3D 가상 세계 뿐 아니라 기술 연구단체 ASF(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에 의하면 증강현실 세계, 라이프로그 세계, 거울 세계, 가상 세계도 모두 포함된다(김상균, 신병호, 2021, 40).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메

타버스 중 가상 세계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가상 세계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이미 교육활동, 공부,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용자 다수가 함께 접속해 어울려 노는 메타버스 공간 파티로얄에서 지난해 5월 열린 힙합 가수 트래비스 스콧의 콘서트에는 1,230만 명이 접속했다. 게임 내 상품 판매 수익은 2,000만 달러(221억 원)에 달했다(IT조선, 3.6). 이렇듯 가상 세계는 우리의 부캐(부캐릭터)가 새로운 나, 이상적인 나, 상상속의 나를 만들어보며 나의 생활을 새롭게 구축하며 정서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 비록 현실 세계에서는 물질적 자기, 사회적 자기가 부족한 것 같으나, 가상 세계에서는 새롭게 물질적 자기, 사회적 자기를 형성할 수 있다.

러니어(Lanier, 2018, 77, 81, 239, 453)는 『가상 현실의 탄생』에서 VR을 사용하여 가상 세계는 꿈을 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우리는 현실에서 하지 못하는 초현실적인 사고와 다양한 상상을 가상 세계에서 구현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의 물리적인 세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VR을 통해서 우리는 어린 시절의 마법이나 상상을 성인기로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성을 규정하는 한계상황에서 벗어난 삶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가상 세계에서는 인간의 배고픔이라는 '몸'의 경험은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지만, 다양한 감각을 통해 현실 세계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물리적인 손상 없이, 위험부담이나 모험 없이 현실 세계에서 하지 못한 꿈과 상상,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러한 점에서 가상 세계는 우리 자신이 VR을 쓰고 벗으며 통제할 수 있는 주관 경험의 세계와 독립된 타자들이 있는 현실 세계를 매개할 수 있는 제 3의 영역이 될 수 있다. 이는 대상관계이론의 '중간 현상'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위니컷(Winnicott, 1951, 1965)은 인격 발달에서 '중간 현상(transitional phenomena)'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말한다. 유아는 어머니가 자신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면 자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전능감을 가지

게 되지만, 어머니가 반응에 실패하였을 때 현실과 한계를 경험하고, 타자들이 독립된 존재임을 객관적으로 지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위니컷(1951)은 독립된 타자들의 세계와 자신이 통제하는 주관 대상의 세계를 매개하는 영역이 제 3의 영역인데, 이러한 중간 영역은 담요나 곰인형과 같이 현실적인 대상이면서도 아이의 환상에 의해 창조된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아이의 환상에 의해 창조된 매개는 부모가 특별히 권리를 인정해줄 때 중간영역으로 창조된다. 이러한 중간대상은 아이의 통제 아래에도, 통제 밖에도 있지 않기에 아이가 이와 관계하며 점차 자신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나 많은 사람들 중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Mitchell, 1999, 313-315). 중간 현상에서의 경험은 아이가 주관적인 사고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현실 세계의 논리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생각들을 펼칠 수 있게 한다. 성인의 경우, 현실의 논리에서 벗어나 가장 개인적인 사고와 이미지를 만나게 되며, 놀라운 방식으로 자신의 환상과 아이디어와 가능성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Mitchell, 1999, 315). 위니컷의 대상관계이론이 비록 유아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성인기까지 확장을 해볼 때, 중간 현상은 가장 자유로운 형태로 자신의 환상과 아이디어와 이미지를 만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곳에서 자신의 상상이 발휘되고, 즐기며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좌절된 욕구를 해소한다. 중간현상은 현실의 좌절된 욕구를 치유하며, 상상과 창의성을 펼치며, 현실의 제약과 통제에서 벗어나면서도 이후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간 현상은 가상 세계와 유사하다.

가상 세계는 현실 세계에서 험벗고, 신체적으로 약하고, 관계가 어렵고, 사회적 지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VR과 부캐를 통해 이상적 자기를 실현시킬 수 있다. 물론 가상 세계에서도 집을 건축하고, 매매하고, 옷을 구매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지만 현실 세계보다 훨씬 자기이상을 실현시키기가 쉽다. 어린이들은 자기에 대한 특별한 영역의 평가뿐 아니라 자기가 치에 대한 세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특별한 영역은 학습 능

력, 운동 능력, 사회적 사용, 외모, 행동 양식인데 아이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에서 능력을 발휘하거나 만족감을 얻을 경우 자기 가치감이 상승된다(Harter, 1988). 그런데 가상 세계에서 쉽게 자기 자신의 특별한 부분에 대한 성취를 얻는다면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다.

현재 메타버스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공간을 창조하기도 하고, 자신의 부캐(부캐릭터)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구성한다. 가상이지만 현실 세계 못지 않게 우리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여 실재감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가상 세계는 현실에서 디지털 기기를 통해 들어가지만 현실의 통제와 제약을 덜 받으며, 자신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다. 소량의 자본으로 부캐를 꾸며 물질적인 자기(self)를 새롭게 하며, 현실의 세계에서 관계가 어떠한지 새로운 관계 안에서 사회적 자기를 형성한다. 가상 세계는 현실과 이어지면서도, 현실에서 창조된 것이며, 상상에 의해 구성된다.

김상균과 신병호(2021, 52-55)는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가 사랑을 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한다. 첫 번째는 현실에서 충족하기 힘든 '인정 욕구'를 가상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재미'라는 것이다. 매슬로우의 5단계 이론에서 '인정 욕구'는 '자아실현 욕구' 바로 아래에 있다. 그만큼 사람들은 타인에게 인정을 받음으로써 자존감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 세계의 경쟁과 바쁜 삶이 인정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워, 현실보다 사이클이 빠르게 돌아가고, 간단하게 인정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가상 세계에서 그것을 누린다는 것이다. 또한 몰입감을 통해 재미를 느끼기에 사람들이 가상 세계에 있는 빈도가 높아진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가상 세계는 현실 세계의 도피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인정 욕구'를 넘어서 '인정 투쟁'이 되고 '좋아요'의 클릭이 자존감에 크게 영향을 주거나, 지나치게 몰입하여 가상과 현실을 구분 못하거나, 현실의 삶을 소홀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경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상 세계의 장점을 통해 인간의 경험과 상상을 확장하고, 이를 현

실 세계에서 반영하며, 현실 세계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면 그 가치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가상 세계는 이상적 자기의 모습을 그려보고 실천해 보는 중간현상으로서 자리하며, 정체성을 형성하며, 부정적인 자기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게도 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되는 곳이라고 볼 수 있다. 단지, 가상 세계에서 향유하고 상상하는 것에 넘어서서 가상과 현실을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가상 세계도 현실 세계와 영향을 주고받는다.

(3) 초월적 세계

우리는 이 현실 세계에 살면서도 동시에 초월적인 세계에 살고 있다. 인간의 역사 속에 동시에 등장하는 세계 종교의 역사는 유한한 이 세계를 넘어서는 초월적 실재에 대한 감각을 보여준다. 루이스(C. S. Lewis)는 의미를 찾으려는 우리의 갈망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의 세계보다 더 나은 것을 찾도록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인간의 갈망은 초월적 세계를 추구하고,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루이스는 우리가 관찰하는 것들이 감춰진 무언가를 일러준다고 주장한다. 일단 발견되기만 하면, 이 감춰진 무언가는 우리가 만물을 보는 시각을 바꿔놓는다 (McGrath, 2013, 191). 그는 유한하거나 창조된 것은 우리 마음의 욕구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과 기쁨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현실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해주는 문이 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다른 세계는 우리가 현실 세계를 벗어나야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McGrath, 2013, 201). “하나님 나라”가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에 있으면서, 우리로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현실 세계에 있으면서 초월적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초월적 세계로 가는 문은 바로 현실 세계에 있다. 현실 세계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일 뿐 아니라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제공해 준다. 벨라(Bellah, 2011, x vi)는 종교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종교적 행위인 의례를 통해서라고 말한다. 의례, 종교적인 행위와 상징을 통해 현실 세계 가운데에 있지만 초월적인 세계로 넘어가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어떤 것을 관찰하며 골똥히 생각하다가, 그것들이 그것들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들어갈 수 있다.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 있는 실마리들이 우리에게 이제까지 감춰진 채 알려지지 않은 실재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다(McGrath, 2013, 38-39). 현실의 삶에서의 상징, 의례, 패턴 발견하기, 무언가 현실 너머의 세계가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 초월적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맥그래스(McGrath, 2012, 196-197)는 기독교가 2000년 역사 동안 계속 지속되며 강한 매력을 가진 이유 중 하나는 인간의 초월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기독교의 진리와 함께 갔기 때문이라고 한다. 인간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기에, 이 세상에 살면서 초월적 세계를 추구하고, 초월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다. 초월적 세계를 인식하는 것, 갈망하는 것은 인간의 특성이다. 이러한 초월적 세계는 4차 산업시대에 특히 중요한 것이다.

오늘날의 많은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시스템은 블랙박스와 같아서 인간이 아직 인공지능경망이나 딥 러닝과 같이 가장 많이 쓰이는 머신 러닝 알고리즘도 어떻게 작동하는지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여 인공지능의 결과물을 검증하기가 어렵다고 본다(Schwab, 2018, 183). 이는 확률 속에서 남아있는 예외와 탁월성의 선별문제, 그리고 다수의 지식과 데이터의 확산능력이 한 개인과 집단에게 옳음과 적합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과 데이터에 둘러싸인 인간이 어떠한 기준과 분별력과 판단력을 갖고 창의성을 발휘할 것인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진리와 지식에 대한 권위를 데이터나 집단지성에 두는 것을 넘어서서 한 차원 높은 층위에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과 질서가 요청된다.

기어츠는 “종교는 사회적인 질서를 묘사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질서를 형성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흥미롭다.”고 하였다(Bellah, 2011, vii). 벨라(Bellah, 2011, 9)는 우리가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 상징적 초월을 바라보는 능력이 있어야 내재론이라 불리는 세계 안에 갇히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는 미국 건국 초기에는 신비적인 질서가 살아있어 사람들이 활력이 있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미국이 마주한 사회적 한계를 초월하고자 한다면 내적인 회심의 경험을 낳고, 새로운 형태의 언약으로 이끌 수 있는 상상적인 비전에 근거해야 한다고 하였다(Bellah, 1975, 85-86). 바로 개인과 집단, 국가가 현재 당면한 한계를 극복하고 활력이 있기 위해서는 초월적 질서와 원리,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상의 끔찍한 재난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종교와 같은 초월의 세계를 통해서이다(Bellah, 2011, 9). 벨라(Bellah, 2011, 19-20)는 우리가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 초월의 세계를 바라볼 때, 일상의 어두움, 공허함, 재난, 고통을 돌파하고 현실의 세계는 성스러운 터전 위에 그 존재의 이유를 지속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보스트롬(Bostrom, 2019, 123)은 인공지능이 향상되면 어느 순간에는 모든 인류의 지적 능력 수준인 “문명 기준선”과 비슷해지고, 계속 향상될 때에는 인류의 모든 지능을 합한 것보다 더 똑똑한 “강한 초지능”에 이를 것이라고 본다. 이는 더 이상 인공지능이 인간의 통제 하에 있지 않을 것이며, 인간이라는 존재도 하나의 유용한 자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가치의 문제를 가져다줄 수 있다.

벨라(Bellah, 1981, 147)는 종교가 세계와 그에 관련된 자기(self)에 관한 안정된 정의를 내려줌으로써 사회나 삶의 덧없음과 위기를 침착하게 대면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교는 한 집단이나 개인의 참모습을 정의해 주고, 종교적인 상징의 개입이 개인에게 안정성(stability), 지속성, 통일성을 가져다준다고 보았다. 이러한 참모습은 심한 곤경 아래에서 변화하며, 종교적 진실에의 개입은 내가 누구이며 내가 속한 집단이 무엇인지를 더욱 명확하게 가르쳐 준다고 보았다(Bellah, 1981, 147). 이러한 점에서 4

차 산업혁명시대에 살고 있는 개인은 초월적 세계를 통해 안정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종교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현상을 서술할 뿐 아니라, 의례 안에서 초월적 세계를 발견하게 한다. 이러한 초월적 세계 안에서 개인과 집단은 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하며, 참모습을 발견하며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AR, VR로 인해 가상 세계에서 종교적 경험을 창출하고자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초월적 세계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종교적 경험은 초월적 원리로 질서를 제공하고, 개인과 집단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하며, 일상의 어두움을 극복하고, 존재의 이유를 지탱해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종교의 역할이 필요하고, 기독교의 역할이 필요하다.

(4) 정리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특징을 현실 세계, 가상 세계, 초월적 세계로 범주화하여 살펴보았다. 현실 세계의 과학기술은 인간에게 가상 세계를 제공하였으며, 초월자에 대한 열망은 초월적 세계를 경험하게 한다. 현실 세계는 가상 세계와 초월적 세계에 문을 제공하는데 가상 세계는 디지털 기기를 통해, 초월적 세계는 현실 세계의 상징과 의례를 통해 들어갈 수 있다. 가상의 세계는 자신의 부캐로 활동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캐는 상상과 창의성을 발휘하게 하며,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새로운 자기지식을 가지게 한다. 가상 세계는 현실에서 물질적 자기, 사회적 자기의 부정적인 모습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현실 세계의 자기이미지와 가상 세계의 자기이미지를 조정하는 가운데 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할 수 있다. 초월적 세계는 일상의 삶에서 상징이 초월적인 것을 개시할 때, 매일의 의례와 주일의 의례가 초월자를 만나게 할 때 펼쳐지게 된다. 비록 현실 세계에서 보고 듣고, 만지고, 무릎을 꿇고, 목소리를 발하지만, 그 시간 그는 초월적 세계에서 초월자를 향해 무릎을 꿇고, 초월자를 향해

목소리를 발하며, 초월자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그에게 초월적인 신비와 질서를 경험하게 하며, 현실 세계의 한계를 넘어서 비전을 발견하고 상상할 수 있게 한다. 초월적인 규범과 원리를 알게 한다.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이러한 원리로 살아가며, 현실의 한계와 고난을 극복하게 한다. 특별히 집단 지성과 윤리, 신념의 문제에 대하여 현실 세계의 원리를 넘어서 판단하고 결정하게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간소외, 인간경시의 문제가 우려된다. 이러한 때에 초월적 세계의 질서가 현실 세계에서 작용한다면 현실 세계의 어려움과 고난, 한계 가운데에서 참모습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어 현실 세계를 근원적인 토대 위에 더 단단하게 붙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현실 세계의 문명이 화려하고, 집단지성이 사회적 원리가 되고, 가상 세계가 주목받고 있을 때, 초월적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면, 인간의 정체성과 존엄성, 사회 통합과 권위, 윤리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바라보며 현실 세계의 문제를 변화시킬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현실 세계, 가상 세계, 초월적 세계는 한 집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실 세계에서 그릇된 가치와 신념이 있어 인간을 소외시키고, 계층화하며, 통제할 수 있다. 인간의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다. 가상 세계가 현실 세계의 투쟁과 원리에 의해 조절된다면, 가상 세계는 상상적이고 창조적인 경험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또한 초월적 세계의 원리를 추구하더라도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종교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도 필요하며, 기독교의 역할이 요청된다. 그러면 기독교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어떠한 기여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Ⅲ. 기독교의 역할과 교육방향

1. 기독교의 역할

1) 초월적 규범

세계 국가, 기업마다 더 빨리 인공지능, 생명공학, 메타버스의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과학은 도덕의 측면에서 장님이라고 맥그래스는 말한다. 따라서 우리에게서 도덕적 지침과 사회적 목적과 개인의 정체성을 제공해줄 초월적 차원이 필요하다(McGrath, 2013, 18-19). 모든 것은 인간의 도덕성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기술의 발전은 치료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고 죽이는 데 사용될 수도 있지만 선택은 인간 몫이며, 인간이 한 선택이 재앙이 될 수도 있다(McGrath, 2013, 176).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 우리는 도덕적 지침과 윤리적 차원을 포괄하는 초월적인 규범이 필요하다. 종교는 초월적 규범으로 ‘한계 이미지’를 제공해 주고, 이러한 한계 이미지는 사회적 개인적 행위를 ‘보다 높은 위치의 지배력’과 ‘보다 넓은 의미’의 틀 속에서 수행하게 함으로써 어떤 종류의 행위는 북돋아주고 다른 것은 피하게 한다(Bellah, 1981, 147). 종교는 겸손한 느낌을 불러일으키고, 거룩한 것에 대한 존경심을 만들어 냄으로써 인간 행동에 규칙성을 부여하고 인간 행동을 특정 영역 안에 한정시키는데 도움을 준다(Bellah, 1981, 148).

기독교 신학은 그 개념의 폭이 넓어 자연과학과 예술과 도덕과 다른 종교 전통들까지 수용할 수 있어 초월적 규범이 될 수 있다. 기독교는 세계를 설명해주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지지하는 지적 논거를 보강해주고, “자연의 보는” 방법을 제공해준다. 덕분에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했을 방법으로 자연의 진가를 인식하고 존중할 수가 있다(McGrath, 2013, 106-107). 맥그래스(2013, 25)에 따르면 복음은 광대하게 펼쳐진 장관과 같은 실재를 밝게 비추춤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사물을 진짜 모습 그대로 보게 해주는 조명 광선과 같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인간 본성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게 해주는 해석

렌즈를 제공한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사물들을 이해하게 도와준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이상과 능력을 순진하게 평가하지 않게끔 도와준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상황을 진단하고 해석해 주어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탐구할 수 있고 해결책을 마련해나갈 수 있게 한다 (McGrath, 2013, 180). 기독교는 초월적 규범 안에서 질서를 제공해 주고, 과학에 도덕·윤리적인 가치와 지침을 주고, 현실을 바르게 보며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해 준다. 이는 초월적 세계의 경험과 초월적 실재와의 만남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이러한 초월적 세계의 규범은 현실 세계에서 영향을 주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규범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이 가공하며 설계하는 가상 세계에도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의미부여

프랑클(Frankl)은 나치 집단 수용소를 겪으면서, 정신세계에 큰 상처를 입히는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 의미를 분간하고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인간이 어려운 집단 수용소와 같은 극한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남느냐 마느냐는 살려는 의지에 달려 있으며, 살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느냐 마느냐는 도덕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황, 사람이 생존과 자기보존에 다가오는 위협들을 직접 체험하는 상황에서도 의미와 목적을 분간하고 알아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 가운데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분간하는 것이 중요하고, 의미 체계를 가지고 자신이 당하고 있는 경험을 마음의 지도 속에 받아들일 때, 이러한 상황을 잘 헤쳐나간다고 하였다. 프랑클은 사건들과 상황들이 지닌 의미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사건들과 상황들에 적용할 능력이 있을 때 실재를 대면할 수 있다고 보았다 (McGrath, 2013, 34).

맥그래스(McGrath, 2013, 34-35)는 기독교 신앙은 실재를 일러줄 내적 지도로 삶의 문제들과 관련하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도와준다고 말한다. 이러한 내적 지도는 우리의 경험을 통합하며, 우리의 경

힘을 의미 있게 만든다. 그리고 우리는 눈을 들어 의미를 발견하고 이 현실 세계는 단지 표지요, 저 너머에 있는 것들을 일러주며 근원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McGrath, 2013, 232). 현실 세계에서 기독교 신앙은 의미를 식별하고, 이해하게 하며,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할 때 현실 세계에서 당면하는 여러 경험들을 마음의 지도 속에 받아들이며 현실을 헤쳐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초월적 세계, 기독교의 신앙은 삶의 의미 체계를 형성해준다고 볼 수 있겠다.

사회심리학자인 바우마이스터(Baumeister, 1992)는 어떤 사고방식을 “삶의 의미”로 여길 수 있으려면, 그전에 먼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근본 문제들에 대해 설득력 있는 대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체성의 문제, 가치의 문제, 목적의 문제, 작용의 문제이다(McGrath, 2013, 210). 이러한 점에서 기독교는 우리에게 의미를 발견하게 해준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과 의미를 부여하시기 때문이다(McGrath, 2013, 215).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시고 정체성을 형성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편 8편의 말씀처럼 사람들을 가치있게 여기시며, 삶의 경험을 가치 있게 하신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을 주시며 사람들을 변화시켜 선한 영향을 발휘하게 하신다(McGrath, 2013, 216-226). 이러한 점에서 기독교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불확실성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의미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현실 세계의 삶의 모습의 양면성과 모순, 역설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며 심미적인 차원으로 통합할 수 있다. 특별히 기술발달과 부의 독점, 양분화로 발생할 인간소외의 상황 가운데에서 개인이 자신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며, 개인과 세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얼룩졌지만, 회복과 소망의 모습을 통합하여 볼 수 있는 안목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3) 개인·세계 변화

기독교는 현실 세계를 설명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상황

을 바꾼다. 복음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세계를 이해하는 시각이 새로워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세계를 보고 새로운 관점에서 세계를 이해하게 된다(McGrath, 2013, 106).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픈 곳을 낫게 해주신다. 인간의 죄성과 도덕적 불결함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해주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인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게 하신다. 하나님은 지극히 어둡고 고독한 실존의 순간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도우시며,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상황을 단지 밝히 깨우쳐주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상황을 바꿔버린다(McGrath, 2013, 223-225). 그리고 이러한 존재의 변화는 우리가 속한 다른 곳의 변화를 일으킨다. 초월적 세계에서 하나님 경험은 우리의 현실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준다.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준다.

벨라(Bellah, 2010, 124)는 일단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어지기 쉬운 영혼으로서 바라본다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나머지에 관해 구할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의 직장, 가정, 정치와 그것들을 지탱하는 충성인 것이다. 우리의 존재의 변화는 우리가 소속된 곳을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초월적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우리는 현실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은 단지 하나의 현상과 사물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간 존재를 변화시키며, 현실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게 한다.

2. 교육방향

현재 기독교는 사사화되며, 앎과 삶, 제자도와 시민된 삶이 분리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기독교가 이 사회에서 참된 교육의 방향 제시를 하지 못하여 왔으며, 오히려 공교육을 따르며 교육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

독교의 초월적 규범은 인간에게 한계 이미지를 부여함으로써 현실 세계에서 사회와 과학기술에 도덕적·윤리적 가치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현실 세계·가상 세계·초월적 세계에서 우리의 경험을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내적 변화와 사회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독교의 역할을 토대로 교육 방향을 살펴보면 “상징을 만들고 표현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의 행위는 현실 세계에서 초월적 세계를 열어주는 상징을 발견하고, 초월적 세계 안에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아우르는 상징을 해석하고, 초월적 세계의 원리를 통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에서 상징을 만들어 다른 이들로 이러한 상징을 통해 초월적 세계로 향하게 하는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현실 세계에서 초월적 세계로 향하고, 가상 세계에서 초월적 세계를 향하며, 초월적 세계의 원리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질서를 제시하며,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상징을 만들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1) 관찰하기

첫 번째는 관찰하기의 단계이다. 맥그래스(McGrath, 2011, 268)는 계시가 역사적 실재에 흔적을 남겼다고 한다. 하나님의 계시는 역사에 영향을 미치고, 신앙의 저장소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시의 흔적은 상징이 되어 우리로 초월적 세계를 인식하게 한다. 자연의 신비함과 아름다움, 예술작품, 시와 노래는 현실의 세계 안에서 현실 너머의 세계를 인식하게 하고, 경이로움과 놀라움을 자아낸다. 우리는 상징 속에 감춰진 실재, 신비한 것, 초월의 세계, 초월자가 있는 것을 깨닫도록 관찰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단순히 바라보는 것뿐이 아니라 패턴을 발견해야 한다. 맥그래스(McGrath, 2013, 32)는 지혜는 자연의 표면만 훑어봐서는 발견할 수 없다고 한다. 겉모습 아래 깊은 곳에 자리해 있는 진리라는 더 심오한 패턴들, 다른 이들이 못 보고 놓친 패턴을 찾아야 발견한다는 것이다. 우리

가 무엇을 파악하고 누구를 알게 되었다는 것은 그 대상이나 사람의 특정한 패턴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고원석, 2019, 289).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관찰을 통해 패턴을 발견하고, 이러한 패턴 속에 현실의 세계를 이해하고, 설명하며, 현실의 세계를 넘어서는 패턴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상 세계에서도 관찰을 통해 패턴을 발견하고, 가상의 세계에서 초월의 세계를 개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2) 들어가기

프랑스 민속학자 아놀드 반 게넵(Arnold van Gennep)은 의례를 통해 인간이 일반사회나 일상세계로부터 분리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분리는 제의의 주체자들이 현실 세계와, 소속된 사회층위에서 분리하는 상징적 행위들을 포함한다는 것이다(양금희, 2014). 이러한 상징적 행위를 통해 들어가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초월적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발견하여 그 문지방을 넘어서는 것을 말한다. 사람은 상징적 행위를 통해 세상에 여전히 속하였지만 초월적인 세계 안에 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사람들을 탈구조공동체로 들어가게 하여 사회가 대안적 사회구조로 재구성되도록 하는 통로가 되게 한다(양금희, 2014). 사람들이 이러한 초월적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초월적 질서를 경험하며 초월적 규범과 윤리를 배우게 된다. 가상 세계도 디지털 기기를 통해 들어가면서 현실 세계에 머무르지만 부캐를 통해 새로운 세상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상상과 창의성을 발현하게 한다.

3) 발견하기

우리는 초월의 세계에 들어가서 현실 세계를 넘어서는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 우리의 사상과 인식, 행위는 이미 현실 세계에서 구성되어 있었다. 문화는 그 사회를 지탱하는 습관과 같은 것이어서 인간이 자아의식을 갖기도 전에 문화가 자아를 형성하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김도일, 2010). 그러나 초월적 세계에서의 경험은 인간의 눈에 가려져 있던 베일을 벗기어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현실 세계를 다시금 바라보게 한다. 오만했던 모습과 죄성을 마주하며, 자존감과 정체성이 초월적 세계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다. 어두웠던 자신을 둘러싼 상황은 의미를 부여받고,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 위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현실 세계의 근원 원리를 파악하게 되며, 현실 세계에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초월적인 규범과 질서 안에서 새롭게 바라보게 된다. 현실 세계에서 인식해왔던 상징물들은 초월적 세계에 의해 다시 발견된다. 가상의 세계에 머무르면서 가상 세계에서 나타난 초월적 세계의 흔적을 따라 초월적 세계를 발견하고, 가상 세계 안에서 초월적인 규범 양식을 발견한다.

4) 참여하기

이제는 초월적 세계와 가치를 발견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초월적 세계 안에서 나타난 상징을 듣고, 만나고, 느끼며 참여하게 된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상징물들을 보고, 듣고, 느끼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상징 안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본다. 상징물들은 그 상징을 통하여, 상징을 넘어서 존재하는 성경이야기, 성서적 세계관, 성서적 가치관을 회중들로 회상 및 반추하게 도와준다(신형섭, 2013). 상징을 통해 이야기를 만나고, 이야기를 통해 상징을 해석한다. 그리고 초월적 세계의 상징들은 인간의 본능에 질적 변화를 일으켜서 그 사람의 내면에 새로운 초월적 가능성을 불어 넣어준다(이규민, 2015). 초월적 상징을 통해 참여하는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의 존재를 변화시켜, 초월적 세계에 사는 시민으로 살아가 수 있게 한다. 가상 세계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하며, 가상 세계의 상징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 어두워졌던 자기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화한다.

5) 상징 만들기

상징에 참여한 이들은 새롭게 상징을 만든다. 현실의 사물과 사건에서

초월적인 세계를 개시하도록 상징을 만들고 표현한다. 예술적 활동을 통해, 예술적 삶을 통해, 자신과 대상이 상징이 되어 초월적 세계를 개시하고 은폐된 세계를 드러내고, 실존의 만남이 일어나는 장이 되게 한다(양금희, 2010, 232). 개인은 초월적 세계를 상징하는 육화된 삶을 산다. 교회는 초월적 세계인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상징이 되고, 모든 공동체에 치유와 화해가 일어날 수 있는 매개 공동체가 된다(장신근, 2015). 기독교적 상징 구조는 절대로 개인의 신앙으로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사회변동으로 이어지게 한다(박상진, 2019). 이러한 상징을 만들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 현실 세계는 초월적 세계를 개시하는 상징이 있는 곳이 되어가며,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초월적 세계를 발견하여 초월자를 만나고, 초월적 규범으로 현실 세계를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을 것이다. 가상 세계에서 현실 세계와 초월적 세계의 이야기가 담긴 상징을 만들어 감으로써 그러한 상징적 표현을 통해 가상 세계에서 현실 세계와 현실 세계의 이야기, 초월적 세계와 초월적 세계의 이야기가 드러나게 한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술과 가치, 개인과 조직의 차원의 문제, 경쟁, 자기착취, 불안(김정준, 2019, 128-134; 임창호, 2018에서재인용; Schwab, 2018, 60-66)의 문제가 있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에서 초월세계를 개시하여, 초월적 규범 가운데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V. 나오는 말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독교의 역할과 교육방향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4차 산업시대의 과학기술은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키며, 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이들을 돕고, 인간에게 유용한 도구를 개발하도록 하였다. 인간의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까지 확장시키면서 현실 세계에서 하지 못하거

나 좌절된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게도 할 수도 있다. 상상과 창의성을 발휘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의 우려와 같이 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경제적 능력에 따른 인간 소외, 정체성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때에 기독교는 초월적 세계를 경험하게 하면서 개인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형성하고, 현실 세계에 초월적 규범을 제시하며, 과학에 방향과 가치를 부여하고, 윤리적·덕성을 함양하면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현실 세계에서 상징을 만들고 표현하는 교육을 통하여 현실 세계에서 상징을 통해 초월적 세계로 들어가고, 초월적 세계 안에서 상징을 만들고 표현하면서 존재의 변화를 이루고 세계를 변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원석 (2019). **현대 기독교교육 방법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 [Koh, W. S. (2019). *Contemporary Christian education methodology*. Seoul: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Press.]
- 김도일 (2010). 시종일관(始終一貫)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교육하기. **기독교교육논총**, 24, 491-518.
- [Kim, D. I. (2010). Educating in and with the Spirit from beginning to end.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24, 491-518.]
- 김도일 편 (2017).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목회**. 서울: 기독교.
- [Kim, D. I. (eds.) (2017). Education ministry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eoul: Gidoghangyo.]
- 김상균·신병호 (2021). **메타버스 새로운 기회 : 디지털 지구, 경제와 투자의 기준이 바뀐다**. 서울: 베가북스.
- [Kim, S. G. & Shin, B. H. (2021). *Metaverse, new opportunity*. Seoul: Vegabooks.]
- 김정준 (2018). 제4차 산업혁명과 교육목회의 새 전망—인공지능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55, 47-88.
- [Kim, J. J. (2018).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new perspective to educational pastoral care: Focu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ge.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55, 47-88.]
- 김정준 (2019).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기독교교육의 인간상 고찰. **기독교교육논총**, 59, 125-158.
- [Kim, J. J. (2019). Humanities of Christian education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59, 125-158.]
- 김종서 (1993). 현대 종교사회학의 의미와 방법론 연구. **정신문화연구**, 16(4), 127-141.
- [Kim, C. S. (1993). The meaning and methodology of the modern sociology of religion. *Korean Studies Quarterly* 16(4). 127-141.]
- 박상진 (2019). 3.1운동에 있어서 기독교학교의 역할과 오늘날의 과제. **기독교교육논**

총, 58, 11-51.

[Park, S. J. (2019). Role of Christian schools in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and today's task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58, 11-51.]

신형섭 (2013). 제인 밴의 상징적 예배언어가 주는 기독교교육적 함의들. **기독교교육논총**, 36, 319-341.

[Shin, H. S. (2013). Educational implications from Jane vann's understanding of symbolic languages of worship.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36, 319-341.]

양금희 (2010). **이야기·예술·기독교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Yang, K. H. (2010). *Story·Arts·Christian education*. Seoul: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Press.]

양금희 (2014). 의례이론과 의례적 인식론을 통해서 본 예전의 기독교교육적 의미. **기독교교육논총**, 37, 83-114.

[Yang, K. H. (2014). A study on the meaning of liturgy for Christian education - Based on the ritual theory and ritual epistemology.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37, 83-114.]

양금희 (2018). AI(인공지능)의 인식론적 문제와 기독교교육. **신학사상**, 183, 165-197.

[Yang, K. H. (2018). AI's epistemological problems and Christian education. *Theological Thought*, 183, 165-197.]

양금희 (2021). AI시대의 영성적 가르침에 관한 연구: "관상적 가르침"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66, 11-48.

[Yang, K. H. (2021). A study on spiritual teaching in the age of ai : Focused on "contemplative pedagogy."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6, 11-48.]

이규민 (2015). 융의 종교심리학에 나타난 종교의 역할과 치유적 기능: 종교 이해의 타당성과 기독교교육적 함의를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43, 137-167.

[Lee, K. M. (2015). The role and therapeutic function of religion in carl jung's

- religious psychology: With a focus on its implications for Christian educ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43, 137-167.]
- 임창호 (2018).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독교교육 방향성 재고. **기독교교육논총**, 56, 11-44.
- [Lim, C. H. (2018). Rethinking the direction of Christian education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56, 11-44.]
- 장신근 (2015). 화해와 치유의 생명 공동체인 하나님 나라의 온전성을 지향하는 지역 교회 교육 연구: “공적 교육 공동체 모델”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42, 133-168.
- [Jang, S. G. (2015). A study on local Church education seeking the integrity of the kingdom of God: Focusing on a “model of public educational community”.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42, 133-168.]
- 지용근 (2021). 통계로 본 기독교의 공공성 회복과 시민윤리. **교육교회**, 505, 18-25.
- [Ji, Y. G. (2021). Restoration of Christian publicity and civic ethics shown in statistics. *Education Church*, 505, 18-25.]
- 최환영 (1999). 로버트 벨라의 종교개념-상징적 실재주의를 중심으로. 미출판 석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Choi, H. Y. (1999). Robert bella's concept of religion-focusing on symbolic realism.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University.]
- Baumeister, R. F. (2010). **인생의 의미**. 김성일, 김혜주 역. 도서출판 원미사. (원저 1992 출판)
- [Baumeister, R. F. (1992). *Meanings of life*. New York: Guilford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92)]
- Bellah, R. N. (1970). *Beyond belief: Essays on religion in a post-traditional world*. New York : Harper & Row, Publishers.
- Bellah, R. N. (1975). *The broken covenant*. New York: The Seabury Press.

- Bellah, R. N. (1980). *Varieties of civil religion*. Oregon: Wipf & Stock Publishers. (Reissued)
- Bellah, R. N. (1981). **사회변동의 상징구조**. 박영신 역. 서울: 삼영사. (원저 1970 출판)
- [Bellah, R. N. (1970). *Beyond belief: Essays on religion in a post-traditional world*. Translator: Park, Y. S. Seoul: Sam Young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70)]
- Bellah, R. N. (2010). Care of souls in today's america. in gallagher, S. (ed.) *Where faith meets culture*. Oregon: Cascade Books.
- Bellah, R. N. (2011). *Religion in human evolution: From the paleolithic to the axial a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Bellah, R. N. et al. (1985). *Habits of the heart : Individualism and commitment in american life*. New York : Harper & Row.
- Bostrom, N. (2019). **슈퍼인텔리전스: 경로, 위협, 전략**. 조성진 역. 서울: 까치글방. (원저 2014 출판)
- [Bostrom, N. (2019). *Superintelligence: Paths, dangers, strategies* (Cho, S. J. Trans.). Seoul: Kachi Publishing. (original work published 2014).]
- Bostrom, N. & Savulescu, J. (Eds.). (2013). *Human enhance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arter, S. (1988). The construction and conservation of the self: James and cooley revisited in lapsley d. k. & power, f. c. *self, ego, and identity*. Springer-Verlag.
- James, W. (2017). **심리학의 원리1**. 정양은 역. 경기: 아카넷. (원저 1890 출판)
- [James, W. (2017).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Jeong Y. E. Trans.). Gyeonggi: Acanet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890).]
-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Kim, H. S., Osmer, R. R., & Schweitzer. R. (2018). *The future of protestant*

religious education in an age of globalization. Münster, Germany:
Waxmann Publisher.

Lanier, J. (2018). **가상 현실의 탄생**. 노승영 역. 파주: 열린책들. (원저 2017 출판)

[Lanier, J. (2018). *Dawn of the new everything: Encounters with reality and virtual reality* (Noh, S. Y. Trans.). Paju: The Open Books. (original published 2017).]

McGrath, A. (2006). *A scientific theology: Reality*. New York: T&T Clark.

McGrath, A. (2010). **과학신학 탐구**. 황의무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원저 2006 출판)

[McGrath, A. (2010). *The order of things : Explorations in scientific theology* (Hwang, E. M. Trans.). Seoul: Christian Literature Center. (original published 2006).]

McGrath, A. (2011). **과학신학**. 박세혁 역. 서울: IVP. (원저 2004 출판)

[McGrath, A. (2011). *The science of God* (Park, S. H. Trans.). Seoul: IVP. (original work published 2004).]

McGrath, A. (2012). **신없는 사람들: 우리 시대 무신론의 오만과 편견**. 이철민 역. 서울: IVP. (원저 2011 출판)

[McGrath, A. (2012). *Why God won't go away* (Lee, C. M. Trans.). Seoul: IVP. (original work published 2011).]

McGrath, A. (2013). **우주의 의미를 찾아서**. 박규태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원저 2011 출판)

[McGrath, A. (2013). *Surprised by meaning: Science, faith, and how we make sense of things* (Park, G. T. Trans.). Seoul: Holy Wave Plus Publishing Company. (original work published 2011).]

McGrath, A. (2014). **삶을 위한 신학**. 안종희 역. 서울: IVP. (원저 2010 출판)

[McGrath, A. (2014). *Mere theology* (Ahn, J. H. Trans.). Seoul: IVP. (original work published 2010).]

McGrath, A. (2014).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 박규태 역. 서울: IVP (원저 2009 출판)

- [McGrath, A. (2014). *A fine-tuned universe* (Park, G. T. Trans.). Seoul: IVP. (original work published 2009).]
- Mitchell, S. A. & Greenberg, J. R. (1999). **정신분석학적 대상관계이론**.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원저 1983 출판)
- [Mitchell, S. A. & Greenberg, J. R. (1999). *Object relations in psychoanalytic theory* (Lee, J. H. Trans.). Seoul: The Korea Psychotherapy Institute. (original work published 1983).]
- Mitchell, S. A. (1988). *Relational concepts in psychoanalysis: An integration*.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Mitchell, S. A. (1993). *Hope and dread in psychoanalysis*. New York: BasicBooks.
- Mitchell, S. A. (2000). *Relationality : From attachment to intersubjectivity*. New York: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 Myers, B. (2010). **과학신학탐구**. 황의무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원저 2006 출판)
- [Myers, B. (2010). *Alister mcgrath's scientific theology in the order of things* (Hwang, E. M. Trans.). Seoul: Christian Literature Center. (original work published 2006).]
- Reno, R. R & McClay, B. *Religion and the social sciences: Conversations with rebert bellah and Christian smith*. Oregon: Cascade Books.
- Schwab, K. (2018).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더 넥스트(The Next)**. 김민주, 이엽 역. 서울: 메가스터디북스. (원저 2018 출판)
- [Schwab, K. (2018). *Shap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Kim, M. J. & Lee Y. Trans.). Seoul: Megastudy 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2018).]
- Winnicott, D. W. (1951). *Transitional objects and transitional phenomena. through paediatrics to psycho-analysis*. London: Hogarth Press.
- Winnicott, D. W. (1965). *The family and individual development*. London: Tavistock.
- 표준국어대사전

[Standard Korean Dictionary]

네이버 국어사전

[Naver Korean Dictionary]

IT 조선 (3. 6)

[IT Chosun. 3. 6]

Abstract

A Study on the Role of Christianity and the Educational Direction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ee Young Kim

Research Professor,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Since Schwab mentione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t the World Economic Forum Annual Meeting 2016, discussions have been ongoing about it and the future societ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xceeds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influences society, culture, and lifestyle. Moreover, in the face of the COVID-19 crisis, society continues to experience and realize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lthough we hope that this era will surely improve human life, we are also concerned about human alienation and social and economic polarization that may emerge as a consequence. How, then, does Christianity contribute to the public space and set the direction for education in this day and age?

This study focused on the role of Christianity and the direction of education du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irst, I examine problems in terms of the inner and outer aspects of individuals and communities that may occur du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rough the perspectives of Mitchell, a psychologist, Bellah, a sociologist, McGrath, a theologian, and Bostrom, a philosopher. Through their theories, we can view the lives of individuals in the real, virtual, and transcendental worlds of this era.

I find that Christianity can provide a transcendent norm in this world, give meaning to life, and change people and the world. Therefore, I suggest the creation and expression of symbols as a direction for education. For this

form of education, I recommend five steps, namely, observing, entering, discovering, participating, and making symbols. In this manner, people can represent the kingdom of God in the real world.

《 **Keywords** 》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I, the Role of Christianity, Educational Direction, Christian Education

- 투고접수일 : 2021년 8월 27일
- 심사완료일 : 2021년 9월 29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9월 29일